

‘발디비아 멀티골’ 전남, 플레이오프행 희망 불씨 살렸다



38라운드 인천에 2-1 승...승점3점 추가하며 4위 수성
2주간 체력 회복...23일 충남아산 상대 최종전 승리 다짐

전남드래곤즈가 홈 최종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플레이오프행 청신호를 켜다.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8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2025 38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38라운드 경기에서 2-1 승리를 기록했다. 발디비아의 멀티골로 홈 최종전을 승리로 장식한 전남은 4위를 수성했다.

전반 6분 발디비아의 슈팅으로 포문을 연 전남은 15분 하남의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에 막히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전반 23분 골키퍼 이준이 서동환의 슈팅을 막아낸 뒤 이어진 전남의 공격에서 르본이 상대 진영까지 진입해 슈트를 시도했다. 상대 수비에 막혀 득점에 실패한 전남은 전반 33분 나운 김영환의 헤더가 골대 맞으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전을 0-0으로 마무리한 김현석 감독은 후반 8분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김현석은 르본과 하남

을 불러들이고 정지용과 호난을 투입했다.

하지만 후반 10분 인천의 공격이 전개됐다. 인천 쇼타의 슈팅이 나왔고 이준이 이를 저지했다.

위기 뒤 기회가 왔다. 후반 11분 전남 공격 상황에서 김용환이 때린 공이 페널티 박스에 있던 인천 델브릿지 팔에 맞았다. 한참 비디오 판독이 진행된 뒤 전남의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발디비아가 키커로 섰다.

발디비아는 침착하게 오른발로 골대를 가르면서 팽팽하던 0의 균형을 깼다. 발디비아의 시즌 15호 골.

전남은 기세를 이어 추가골 사냥에 나섰다. 후반 20분 정지용의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 골키퍼 김동현에 막혔다. 후반 21분에는 발디비아의 발리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김현석 감독은 후반 27분 홍석현을 대신해 장순혁을 그라운드에 올리면서 변화를 줬다. 그리고 후

반 30분 기다렸던 전남의 추가골이 나왔다.

정지용이 때린 공이 골대 맞고 흘렀지만 발디비아가 공을 잡아 침착하게 원터치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멀티골을 기록했다.

인천이 후반 막판 라인을 올리고 공세를 펼쳤고, 16분의 후반 추가시간이 주어지면서 혈투가 이어졌다.

전남은 후반 추가 시간 10분 박호민에게 추격골을 허용했지만 남은 시간을 실점 없이 지키면서 승리를 완성했다.

전남 김현석 감독은 “우승을 확정된 인천에서 예상대로 뛰지 못했던 선수들 위주로 나왔는데, 이런 멤버로 나왔을 때 개개인이 더 열심히 뛰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끝까지 보여준 투혼으로 승점 3점 만들어낸 선수들에 감사하다”며 “약 2주간의 휴식기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휴식도 충분히 주며 한 시즌 누적된 피로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뒤도 돌아볼 필요없이 최종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남은 오는 23일 충남아산을 상대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의 발디비아가 8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38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광주, 달빛더비 또 패배...K리그1 ‘꼴찌 전쟁’ 끝나지 않았다

36라운드 대구 원정서 0-1 패
최하위 대구, 강등 싸움 불씨 살려

광주FC가 대구FC의 막판 공세를 막지 못하면서 3연승에 실패했다. ‘최하위’ 대구는 두 경기 연속 극장골로 벼랑 끝에서 희망을 살렸다.

광주는지난 8일 대구IM뱅크PARK에서 열린 K리그1 2025 36라운드 대구와의 원정경기에서 0-1패를 기록했다.

3개의 슈팅에 그친 광주는 후반 추가 시간 실점을 하면서 패자가 됐다. 앞선 32라운드 홈경기에서 대구에 2-3 패를 기록했던 광주는 다시 또 일격을 당하면서 코리아컵 준비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

‘다이렉트 강등’ 위기에서 직면했던 대구는 다음 기회를 얻었다.

3연승과 코리아컵 위망염이라는 목표로 나선 광주와 강등을 피하기 위한 대구의 대결. 벼랑 끝에 선 대구 선수들의 간절함이 광주를 압도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광주 문민서가 이날 경기의 첫 슈팅을 장식했지만 이후 흐름은 대구가 주도했다.

팽팽한 공방전 끝에 전반전이 0-0으로 마무리되자 이정호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카드로 분위기를 바꿨다. 문민서와 유재호를 불러들인 이정호 감독은 신창무와 하승운을 투입했다.

후반 13분에는 앞선 제주전에서 K리그 데뷔골을 넣은 프리드손슨을 그라운드로 올렸고, 3분 뒤에는 주세종을 빼고 이강현을 교체하는 등 흐름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광주는 이렇다 할 공세를 펼치지 못하면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8일 대구IM뱅크PARK에서 열린 대구FC의 3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1패를 기록한 뒤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후반 막판 ‘수문장’ 김정민이 바쁘게 움직였다.

후반 39분 대구 에드가가 가슴으로 공을 트리핑한 뒤 곧장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매섭게 나아간 공이 골대 상단을 때리면서 광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후반 44분에는 대구 라마스의 슈팅이 나왔고, 이번에는 김정민이 공을 토폴 안았다.

0-0에서 5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 그리고 추가 시간 시작과 함께 대구 김강산의 위력적인 중거리 슈팅이 나왔다. 김정민이 다시 한번 안정된 수비로 골을 저지했지만 이어진 공격은 막지 못했다.

후반 47분 대구 정현택이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반대쪽에서 달려든 김현준이 오른발 느스톱 슈팅으로 굳게 닫혀있던 광주의 골대를 뚫었다.

앞선 수원FC와의 경기에서 후반 53분 터진 에드가의 헤더로 극적인 1-1 무승부를 만들었던 대구는 두 경기 연속 극장골을 장식하면서 잔류 희망을 이

어갔다.

이날 대구와 최하위 싸움 중인 제주SK FC가 FC안양에 1-2패를 기록하면서, 강등 싸움은 더 극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게 됐다.

36라운드 결과에 따라 제주는 승점 35점, 대구가 32점이 됐다. 대구가 6경기 연속 무패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갈 길 바쁜 제주는 연패에 빠졌다. 득점에서도 대구(44점)가 제주(38점)에 앞서 있는 등 두 경기를 남겨놓고 알 수 없는 최하위 싸움이 예고됐다.

특히 두 팀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맞대결을 벌이게 되면서 사실상 ‘강등전’이 될 전망이다.

한편 36라운드 경기를 통해 ‘승격팀’ FC안양은 잔류를 확정했다.

제주전 승리로 승점 48을 채운 안양(14승 6무 16패·득점 47)은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 광주(13승 9무 14패·승점 48·득점 37)를 끌어내리고 7위로 올라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코비치, ATP 투어 통산 101번째 우승

반다제약 헬레닉 챔피언십 우승...하드 코트 단식 최다 우승 기록

노바크 조코비치(5위·세르비아·사진)가 남자 프로테니스(ATP) 투어 반다제약 헬레닉 챔피언십(총상금 76만6715유로) 단식 정상에 올랐다. 조코비치는 8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로렌조 무세티(9위·이탈리아)에게 2-1(4-6 6-3 7-5) 역전승을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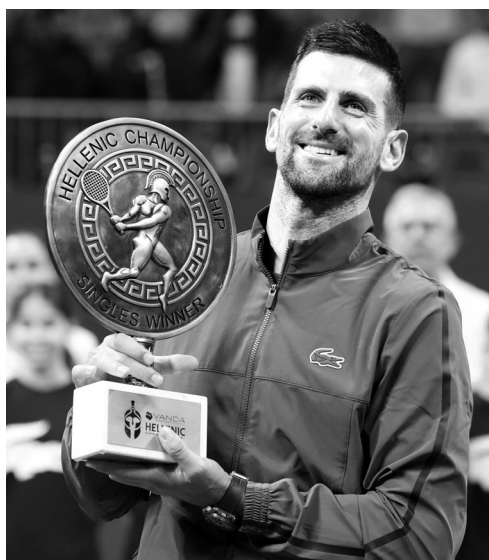
올해 5월 제네바 챔피언십 이후 시즌 두 번째 투어 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한 조코비치는 투어 이상급 대회 단식 우승 횟수를 통산 101회로 늘렸다.

이는 이미 은퇴한 지미 코너스(109회·미국), 로저 페더러(103회·스위스) 다음가는 기록이다.

우승 상금 11만6690유로(약 1억9000만원)를 받은 조코비치는 하드 코트 투어 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72회)도 세웠다. 조코비치는 이 대회 전까지 페더러와 이 부문 최다 기록(71회)을 나눠 갖고 있었다.

조코비치는 또 이번 우승으로 1977년 켄 로즈월(호주) 이후 48년 만에 투어 대회 단식 최고령 우승자가 됐다.

로즈월은 당시 43세 나이에 투어 대회 단식을 제패했고, 조코비치는 38세 5개월에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올해 1월 가엘 몽피스(프랑스)가 뉴질랜드 ASB클래식 단식에서 우승, 38세 4개월에 ATP 투어 단식 챔피언이 돼 로즈월 이후 최고령 우승자가 됐다.

역대 ATP 투어 단식 최고령 우승은 1972년 리처드 곤살레스(미국)가 달성한 44세 7개월이다. /연합뉴스

북한 U-17 여자축구, 네덜란드 꺾고 월드컵 2연패

‘전승 우승’으로 통산 4회 정상

북한 17세 이하(U-17) 여자 축구 대표팀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 월드컵 2연패를 달성했다.

북한 U-17 여자 대표팀은 9일(한국시간) 모로코 라바트의 라바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3-0 대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2008년 초대 대회 우승팀으로 2016년과 2024년 대회에서도 축배를 든 북한은 대회 2연패와 더불어

역대 최다 우승 횟수를 4회째로 늘렸다.

2024년 대회까지 2년 간격으로 열렸던 U-17 여자 월드컵은 올해부터 매년 개최로 바뀌고 출전국도 16개 팀에서 24개 팀으로 늘어나는 변화 속에 5년 동안 모로코에서 개최하게 됐고, 첫 우승 타이틀을 북한이 끊었다. 특히 북한은 조별리그를 비롯해 16강전부터 결승까지 7연승 행진으로 ‘전승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북한은 2024년 대회에선 조별리그부터 준결승까지 5연승을 내달리다 스페인과 결승에서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로 이기고 우승한 바 있다.

U-17 여자 월드컵에서 무패 우승은 2014년 대회에서 일본(6연승)이 처음 달성했고, 북한이 두 번째다.

이날 북한은 역대 처음 U-17 월드컵 무대에 출전해 결승에 오른 네덜란드를 상대로 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며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북한은 개인상 부문도 휩쓸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8골을 터트린 유정향은 골든볼(최우수선수)과 골든부츠(득점왕)를 받았고, 7골을 작성하며 득점 2위에 오른 김원심은 실버볼과 실버부츠를 정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400회 정기연주회

'혁명가들'

일시 : 2025-11-14(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챗그릇에 뜬 달 : 김기현×정우식

일시 : 2025-10-31(금) ~ 2025-11-30(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400th Anniversary
혁명가들